

<b>보도자료</b> 2013. 6. 18.	 <div> <b>대 법 원</b>  Supreme Court of Korea </div>	
	담당부서	국제심의관실
	담당자	국제심의관 진상훈 (☎3480-1969)
	공보관실 ☎ 3480-1451	

## 나이지리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 알로마 묵타르 나이지리아 대법원장은 2013. 6. 18.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양국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음
-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사법부 간에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한국의 사법정보화시스템 전수 등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1. 방문 개요

- 알로마 묵타르(Aloma M. Mukhtar) 나이지리아 대법원장이 6. 16.(일)부터 6. 19.(수)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한국 대법원을 방문함. 묵타르 대법원장은 한국의 사법정보화시스템 견학을 위해 방한한 8명의 주 법원장 등 고위법관

들과 함께 방한하였음

- 이번 방문은 나이지리아 대법원의 사법정보화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 국립주법원센터(National Center of State Courts, NCSC)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나이지리아 대법원이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세계은행(World Bank)이 2012. 10. 발표한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13)의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Enforcing Contracts)'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사법부의 사법정보화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 묵타르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은 나이지리아 대법원장으로서는 첫 번째 한국 방문임

## 2. 방문 세부 내용

- 묵타르 대법원장 등 나이지리아 방문단은 6. 18.(화) 오전 11시부터 약 30분간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한국의 사법정보화시스템의 전수, 양국 사법 교류의 활성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음
- 묵타르 대법원장은 한국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고 사법정보화 및 법관연수 등의 분야에서도 나이지리아가 한국을 모범으로 삼아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양승태 대법원장도 향후 양국 사법부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음
- 나이지리아 방문단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회관으로부터 한국 사법제도를 소개받고, 오후 12시 10분부터 2시까지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최한 환영오찬에 참석하였음.
- 이어서 나이지리아 방문단은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세계적 수준인 한국의 사법정보화에

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을 살펴보았음

### 3. 향후 일정 등

- 목타르 대법원장은 6. 19.(수) 오전에 먼저 귀국하고, 나머지 나이지리아 방문단은 6. 21.(금)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사법연수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법관연수 제도와 전자소송을 비롯한 재판실무의 현황을 살펴볼 예정임
- 목타르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사법부 간에 사법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한국의 사법정보화시스템의 전수 등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